

위대한 김일성 -

로동신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일주의 만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김정은동지 만세!

제279호 [루계 제25057호] 주제 104 (2015)년 10월 6일 (화요일)

김정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주제 104 (2015)년 10월 4일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은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가장 경사스러운 혁명적명절로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은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 밑에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어 혁명과 건설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이다.

조선로동당의 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역사적위업, 주체혁명위업이다.

조선로동당의 70년력사는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의 정당성과 필승불패성을 파시한 자랑찬 승리의 역사이다.

조선로동당은 창건후 70성상 주체혁명위업을 수행하는 역사적투쟁속에서 주체의 혁명적당,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으로 강화발전되었으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혁명과 건설의 승패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어떻게 건설하고 그 정도적역할을 어떻게 높여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당건설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 계승성이 확고히 보장된 수령의 당,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건설되고 강화발전되었다.

혁명적당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실현해나가는 수령의 당이며 당건설에서 기본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그 계승성을 실현하는것이다.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전당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실현하며 전당이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게 하는것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당건설과 당활동을 오직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진행하여 당을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한 위대한 사상적 순결체, 조직적일체로 되게 하였다.

수령을 중심으로 한 통일단결을 이룩하는것은 조선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으로 하여 창건 첫날부터 우리 당앞에 더욱 중대한 문제로 나섰다. 우리 당은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종파주의와 온갖 기회주의조류를 극복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였으며 수령을 중심으로 한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심화시켜왔다.

우리 당은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수령의 유일적결론에 따라 처리해나가는 체계를 세웠으며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수령이 제시한 로선과 정책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확립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전당김일성주의화로선을 제시하시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켜나가기로 하시던것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데서 결정적전환의 계기로 되었

다. 조선로동당을 명실공히 수령의 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킨것은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이다.

우리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계승문제를 올바로 해결하여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대를 이어 계승되게 하였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계승문제는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며 혁명적당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력사는 수령의 올바른 령도밑에 혁명을 성과적으로 전진시켜온 당이라 하더라도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옮겨 계승하지 못하면 당이 변질되고 결국에는 혁명의 좌절을 가져오게 된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기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천리해안의 예지로 멀리 앞을 내다보시며 혁명위업을 계승해 나갈 령도자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다지고 령도체계를 세우도록 하여 수령의 사상과 령도가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되게 하시었다.

대를 이어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 계승성을 보장한것은 조선로동당의 전투적위력과 불패성의 근본요인으로 되었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대를 이어 확고히 계승함으로써 우리 당은 사회주의나라 집권당들의 사상적변질과 좌절의 역풍속에서도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혁명적본태를 변함없이 고수해올수 있었으며 혁명과 건설을 능숙하게 조직 령도하여 거창한 사회적변혁들을 이룩할수 있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건설되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수령, 당, 대중은 운명공동체이다. 당과 수령의 령도를 떠나서는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없는 것처럼 당도 인민대중과 떨어져서는 위력한 정치조직으로 될수 없으며 정치적향도자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구성성분으로 하는 대중적당으로 건설하고 당의 모든 활동을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로 지향시켜 우리 당이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인민대중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피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인 인덕정치, 팽폭정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당과 인민대중이 끊을수 없는 혈연의 정으로 튼튼히 이어지게 하시었다.

우리 당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람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따듯이 보살피주며 일편단심 당을 총직하게 받아들여온 우리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으며 일군들이 세도와 판로주의를 없애고 인민의 총복으로 일해나가기로 이끌어주었다.

우리 당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감으로써 우리 인민들은 당의 품을 진정한 어머니품으로 여기고 자기들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으며 당의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충성을 바쳐가고있다.

인민에 대한 당의 믿음과 사랑,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에 기초한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 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대오의 공고성과 위력의 원천이 있으며 모든 승리의 기본담보가 있다.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의 위력이 있어 우리 당은 승리의 신심드높이 혁명앞에 가로놓인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전진할수 있었으며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올수 있었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의 령도방식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세련된 령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었다.

령도방식은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좌우하는 기본요인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인민대중의 힘으로 풀어나가는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창조하고 구현하여오신 조선로동당의 전통적인 령도방식이다.

인민대중의 힘은 곧 사상의 힘이며 집단주의의 위력이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의사를 집대성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인민대중의 사상을 발동하여 관철하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였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이 기본이며 사상의식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사상론을 구현하여 인민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나갔으며 혁명발전의 단계마다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운동을 널리 조직 전개하여 인민대중의 집단주의적위력, 대중적영웅주의가 높이 발휘되도록 하였다.

인민대중에 의거하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고조를 일으켜나가는 투쟁과정에 우리 당은 비상한 조직력과 령도적수완을 지닌 세련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었다.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령도는 군사를 앞세우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는 우리 식의 독특한 혁명령도방식이다.

우리 당은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고 인민이라는 독창적인 선군혁명원리에 기초하여 인민군대를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사상과 신념의 강군,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켜왔다. 전군을 김일성-김정일주의의화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가 확고히 실현되고 인민군대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뉘 앞장에서 결사관철해나가는 백두산혁명강군으로 튼튼히 준비됨으로써 우리 당의 정치군사적지반이 철통같이 다져지게 되었다.

당의 선군령도에 의하여 인민군대를 본보기로 한 혁명대오의 정예화가 실현되고 군민단결이 강화되었으며 전당, 전민이 인민군대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으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게 되었다.

독창적인 선군령도로 주체혁명위업을 전진시켜나가는 투쟁과정에 우리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은 비상히 강화되게 되었다.

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온 조선로동당의 당건설경험은 자주시대 혁명적당건설위업수행의

산모범으로 된다.

조선로동당은 지난 70년동안 존엄하고 복잡한 력사의 풍파를 뚫고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왔다.

우리 당이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이끌어온 과정은 제국주의와 지배주의, 수정주의,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침에하고 심각한 정치투쟁, 계급투쟁이었으며 참다운 인민의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전인민당의 길을 열어나가는 어려운 투쟁이었다.

우리 당은 여러 단계의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전 과정에 그 어떤 기존리론이나 공식도 따르지 않았으며 오직 독창적인 주체의 한길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왔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조선혁명의 좌표이고 기본주요이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근 한세기에 걸쳐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과 전통, 풍부한 경험이 집대성되어있으며 우리 혁명의 근본원칙과 끝바른 진로가 뚜렷이 밝혀져 있다.

조선로동당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로선과 원칙을 백년대계의 전략으로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주체혁명위업을 향도해나가는 력사적인 투쟁속에서 우리 인민을 존엄높은 자주적인인민으로, 혁명의 위력한 주체로 키웠다.

인민대중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자주적인 주체로 키운 여기에 조선로동당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업적 이 있다.

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고 자주위업수행의 담당자이지만 혁명적당의 올바른 령도에 의해서만 참다운 혁명의 주체로 될수 있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언제나 여기에 선차적힘을 넣었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조직적으로 묶어세워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시키고 그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발양시켜 혁명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우리 당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조로 체득하고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당이 구상하고 일단 결심하면 그것은 곧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의지로, 실천으로 되고있다.

특히 새 세대 청년들이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혁명의 계승자로 자라나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으며 우리 나라는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자랑떨치고있다. 우리 당의 력사에는 청년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당의 척후대, 익측부대로 키운 자랑찬 력사가 응축되어있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1 면에서 계속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당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이런 훌륭한 군대와 인민, 이런 훌륭한 청년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크나큰 긍지이고 자랑이며 바로 여기에 조선로동당이 지난 70년력사에 오직 승리만을 새겨온 비결이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상이 실현되는 주체의 사회주의를 건설한것은 조선로동당이 이룩한 역사적 업적이다.

사회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의 리상이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것은 혁명하는 당들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의 리상에 맞는 진정한 사회주의의 길을 새롭게 개척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전 과정에 주체의 혁명적로선과 원칙을 일관성있게 견지하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자주적지향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갔다. 우리 당은 외세의 간섭과 압력을 배격하고 변함없이 주체의 사회주의 한길을 따라 곧바로 전진하였으며 고난의 행군시기와 같은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도 우리의 사회주의를 압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악랄하고 끈질긴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면서 사회주의건설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왔다.

조선로동당의 주체적로선과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건설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가 최대로 실현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대중이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있으며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이 최우선, 절대시되는 인민중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실시되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가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인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를 자기의 생명으로, 생활로 받아들이고있으며 사회주의화원을 더 잘 가꾸고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더 빨리 일떠세우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고있는것이다.

당의 현명한 명도와 당에 충실한 인민대중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역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존엄높은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일떠섰으며 사회주의강국의 위력을 떨치며 세 세기 지식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조선로동당은 군대와 인민을 명도하여 세기를 이어 계속된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에서 승리의 전통을 새기며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 혁명의 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제국주의가 있는 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은 적들과의 첨예한 대결을 동반하게 된다. 세기와 세대를 이어가며 장구한 기간 반제반미투쟁의 전초선으로 되여온 우리 나라에서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 혁명의 진취물을 수호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우리 당은 군사중시로선과 원칙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혁명무력건설과 나라의 방위력강화를 제일차적인 국사로 내세웠으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강위력한 방위력에 의지하여 미제와의 계속되는 대결전에서 편전승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명도밑에 청소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역량상 대비가 안되는 강대한 적, 세계《회강》을 자랑하는 미제를 타승하는 역사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는 강철의 평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군사사상과 탁월한 군사전략의 승리였으며 귀중한 조국을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싸운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영웅적인 조국수호정신이 안아온 승리였다.

우리 당은 전후 수십년동안 제국주의연합세력과의 대결전에서 선군의 위력, 군사강국의 위력으로 적들의 계속되는 침략적기도를 걸음마다 짓부시고

언제나 승리하였다.

최근 일촉즉발의 긴박한 정세속에서 우리 당은 자기의 명도력을 발휘하여 조국앞에 닥쳐온 위험천만한 사태를 제때에 평정함으로써 전쟁의 참화로부러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지켜냈다. 첨예한 대결전에서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 혁명의 진취물을 지켜낸것은 우리의 정신도덕적우세와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군민대단결의 위력이 안아온 커다란 승리이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따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조선로동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은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역사적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 땅위에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움으로써 국제무대에서 공화국의 존엄과 지위를 비상이 높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였다.

별강들의 각축전장으로 수난많은 조선반도의 지정학적숙명론은 이미 과거사로 되었으며 사회주의의 우리 공화국은 자기 운명의 주인, 지역과 세계정세발전의 주체로서의 권리와 영향력을 당당히 행사하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일심단결의 위력과 핵억제력을 주축로 하는 무진막강한 방위력에 의지하여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우리 식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다그쳐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고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을 실천으로 확증하였다.

우리 당은 최악의 조건과 환경속에서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은 정의이며 사회주의는 과학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조선로동당은 자기의 역사적인 투쟁을 통하여 지구위에 사회주의와 정의가 살아있고 그 힘은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보다 더 강하며 반제자주,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시대적흐름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는 역사의 진리를 뚜렷이 실증하였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며 조선로동당의 명도가 있는 한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것이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70년력사의 총화이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역사적사명이며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조선로동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가리키는 주체의 한길로 변함없이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뜻대로 당건설과 당활동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당건설사상과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끝까지 관철하며 수령님들의 명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전당에 당의 유일적명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전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된 사상과 신념의 결정체로 만들어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른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지니고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들을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 당의 사상적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당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당중앙의 유일적명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조직규율을 확립하여야 한다.

강한 조직성과 규율성, 단결력은 혁명하는 당의 생명이며 필승불패의 위력의 원천이다. 전당이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중앙에 집중시키고 당중앙의 유일적결론에 따라 처리하며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당안에 제정된 질서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는 혁명적규율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당의 사상과 정책을 결사옹위하고 결사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영원한 전통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에서 당정책관철을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한다.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는 우리 당의 공고성과 생명력의 원천이며 조국사수, 혁명보위의 최강의 무기이다.

전당이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수령님식, 장군님식 인민관을 지니고 인민을 하물같이 여기고 내세우며 언제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고틱을 같이하면서 인민을 위하여 뛰고 또 뛰는 참된 인민의 총부이 되어야 한다.

전당적으로 세도와 판로주의, 부정부패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 주체의 혁명적당, 어머니당의 본태를 고수하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보장하여야 한다.

당의 명도밑에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한 총로선은 사회주의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다.

우리 인민정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보호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의 사업체계와 방법을 개선하고 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경제조직적기능을 강화하여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추동하여야 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해나가는 기본방식이다.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인간개조, 자연개조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사회관계를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요구에 맞게 발전완성시켜야 한다.

당의 사상중시, 군사중시, 과학중시로선을 틀어쥐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우리 혁명의 제일보루인 정치사상진지를 튼튼히 다지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5대교양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우리의 일심단결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가 되게 하며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고 우리의 계급진지, 혁명진지를 반식같이 다져나가는 계급의 전위투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내부로부터 허물어보려는 적들의 온갖 책동을 예리하게 가려보고 각성있게 대하며 사회주의화원에 자본주의 독초의 사소한 싹도 절대로 돌아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전사회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도덕과

생활방식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서로 돕고 이끄는 건전하고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의 미풍을 활짝 꽃피워나가야 한다.

조국의 미래와 혁명의 진도는 새 세대 청년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모든 당조직들이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과 로선을 틀어쥐고 청년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청년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모두가 우리 당의 사상적혈통, 신념의 피를 순결하게 이어받아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는 혁명의 전위투사, 선군청년영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위적국방력은 선군조선의 존엄이고 자주권이며 승리의 담보이다. 당의 자위적군사로선과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군대에서 최고사령관의 명군체계와 혁명적군풍을 철저히 세우고 강철같은 군기를 확립하며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일당백의 용사로, 모든 부대를 최정에전투대로 만들어야 한다. 인민군대는 언제나 우리 혁명의 제일선에서 전격의 돌고구를 열어나가며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단숨에의 투쟁기풍과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높이 떨쳐야 한다.

우리 식의 위력한 최첨단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자위적핵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해나가며 전민항전준비를 철저히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현대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강국과 문명국을 하루 빨리 일떠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과학기술발전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사회주의 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사회주의 강성국가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제시한 혁명적경제로선과 정책을 튼튼히 틀어쥐고 인민경제 선행부문을 강화하는데 힘을 집중하면서 경제강국건설목표를 단계별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당의 구상과 의도에 맞게 인민생활향상에 선차적 힘을 넣어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과 보건, 체육, 문화예술을 비롯한 모든 문화분야를 사회주의문명국의 높이에 올려세워 21세기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열어나가야 한다.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거어 실현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우리 당앞에 나선 최대의 과업이다. 우리는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더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북과 남이 합의한 조국통일3대원칙과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에서 천명해대로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고 이 땅위에 강성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워야 한다.

우리 당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관철하여 세계 자주화위업실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진보적인인민들과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며 강권과 전횡을 일삼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들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앞에는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과감히 헤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 무겁고도 성스러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전체 군대와 인민이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조선로동당은 앞으로도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치며 백승의 역사만을 아로 새겨갈것이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성스러운 위업은 영원히 필승불패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라선시 큰물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보내시는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 진행

【라선 10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라선시 큰물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온정어린 선물을 보내주셨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 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라선시의 큰물피해지역분부와 관련한 대책들을 취해주시고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파견하여 신봉지구를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완전히 새롭게 건설시키도록 하여주시였으며 몸소 현지에서 나오셔서 피해복구전투를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들이 5일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모임들에는 인민무력부장인 육군대장 박영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경해동지와 김용진 내각부총리, 강요영 인민무력부 부부장, 립경안 라선시당위원회 책임비서, 조경호 라선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서 일군들, 라선시피해지역 주민들이 참가하였다.

모임들에서는 선물전달사가 있었다. 언설자들은 인민에 대한 한없이 숭고한 사랑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라선시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온갖 중대 조치를 취해주시고 당장 70톤을 맞으며 새정들이를 앞둔 이곳 주민들에게 또다시 온정어린 선물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격에 넘쳐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고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치는 사랑은 언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백옥같은 총정과 의리로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감으로써 조국의 북극 선진지구로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 일심단결의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피해지역 주민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백옥같은 총정과 의리로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감으로써 조국의 북극 선진지구로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 일심단결의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고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치는 사랑은 언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백옥같은 총정과 의리로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감으로써 조국의 북극 선진지구로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 일심단결의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고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치는 사랑은 언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백옥같은 총정과 의리로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감으로써 조국의 북극 선진지구로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 일심단결의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고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치는 사랑은 언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백옥같은 총정과 의리로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감으로써 조국의 북극 선진지구로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 일심단결의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고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치는 사랑은 언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백옥같은 총정과 의리로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감으로써 조국의 북극 선진지구로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 일심단결의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고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치는 사랑은 언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백옥같은 총정과 의리로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감으로써 조국의 북극 선진지구로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 일심단결의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절세위인들의 현지도 표식비, 혁명사적표식비

여러 단위에 건립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는 현지도표식비, 혁명사적표식비가 단청대우회장과 조선기독교청년회, 함흥동문회, 영평청년양아재에 건립되었다.

단청대우회장에 세워진 현지도표식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여러차례 이곳을 찾으신 유적장을 인민들의 문화유산으로 훌륭히 꾸리고 관리운영과 보수를 정상적으로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신 내용이 담겨져있다.

조선기독교청년회현장에는 주제63(1974)년 1월 12일 풍치수리한 대동강기슭에 일떠선 활영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좋은 영화들을 많이 만드셨는데 나 무도 많이 심어 청사주변을 잘 꾸리데 대하여 교시하신 내용을 담은 현지도표식비가 건립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제 51(1962)년 9월 구천각에 오시어 동송산에 풍물원을 건설하고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

장소로 꾸리데 대하여 일일이 밝혀주시고 어머니장군님께서 동물원의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내용의 혁명사적표식비가 함흥동문회에 세워졌다.

영평청년양아재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주제90(2001)년 9월 이곳을 찾으신 후 물고기 기를기를 과학화, 집약화하여 양어장관리운영을 잘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생산 공급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할 의지와

【평양 10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장군 일흔셋을 맞이하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환희와 격정을 더해준 조국 당요에 행복의 선경이 연이어 펼쳐지고있다.

절세위인들의 사랑속에 젊음으로 아득하는 우리 조국의 벚친 승경을 푸른 물결위에 담아내고 흐르는 락원의 강, 대동강에 두둥실 떠오른 종합사선 《무지개》 호가 개업하였다.

풍치수리한 대동강물결위에 떠오른 또 하나의 인민봉사기지

종합봉사선 《무지개》 호 개업식 진행

개업식장에는 인민의 행복을 위한 불꽃은 헌신속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으며 인민사랑의 기쁨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높이 오시어 세상에 가장 유일한 인민사랑의 대화원에서 참된 삶을 누려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헌신과 자부심으로 꽃피어 설 때이고있었다.

개업식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무궁토록 번영할 김정은강조건의 메일을 앞당기자!》,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해나가자!》라는 구호판들이 개업식장에 세워져있었다.

박봉주동지, 최태복동지, 오수용동지와 차희원명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종합봉사선건조에 동

원된 부대지휘관, 군인들, 관계부, 선각공업부 일군, 건설자들, 평양시안의 근로자들이 개업식에 참가하였다.

《김정은장군관하》 주악으로 개업식은 시작되었다.

내각총리 박봉주동지가 개업사를 하였다.

언설자는 뜻깊은 당장전 일흔셋을 앞두고 개업한 종합봉사선 《무지개》 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시는 사랑의 선물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동강에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봉사선을 띄우데 대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생전의 뜻을 받들시어 종합봉사선의 뜻깊은 통이 큰 작전을 펼치고 수심 차에 걸치는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봉사선건조의 전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선각공업부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인들은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짧은 기간에 종합봉사선의 선체부리를 끝내고 내부마감공사를 훌륭히 완성하여 당장전 70톤을 맞으며 대동강에 띄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건조하는 봉사선 《무지개》 호로 명명하여주시고 깊은 밤 봉사선을



우리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려는 당의 의도가 완벽하게 실현된 종합적

인 봉사시설 《무지개》 호가 개업함으로써 인민들이 보다 행복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회주의 조국의 수도 평양을 감동아호는 대동강의 모습은 로동당시대에 더욱 아름답게 변모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떠날수록 훌륭히 건조된 종합봉사선 《무지개》 호 개업식이 5일 대동강에서 진행되었다.

개업식장은 인민의 행복을 위한 불꽃은 헌신속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으며 인민사랑의 기쁨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높이 오시어 세상에 가장 유일한 인민사랑의 대화원에서 참된 삶을 누려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헌신과 자부심으로 꽃피어 설 때이고있었다.

개업식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무궁토록 번영할 김정은강조건의 메일을 앞당기자!》,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해나가자!》라는 구호판들이 개업식장에 세워져있었다.

박봉주동지, 최태복동지, 오수용동지와 차희원명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종합봉사선건조에 동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기념메달을 제정함에 대하여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기념메달 그 립 풀 이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기념메달은 직경 38mm의 금색광선이 찬란한 오각형배설우에 오각별이 있고 그 안에 직경 27mm의 동그라미가 있으며 동그라미 윗부분의 휘날리는 기발안에 《영웅청년》이라는 글자가, 그 아래부분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발전소건설, 송전탑, 이빨나무술이 부각되어있다.

그 좌우에 3.5mm의 흰색, 4.5mm의 푸른색으로 되어있는 락을 가로 33mm, 세로 37mm에 그 아래쪽 폭쪽한 금속판에 의했으며 고리로 메달과 연결되어있다.

메달뒤면에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기념메달》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으며 수위면에는 옷에 달기 위한 빈틈이 있다.

장작은 가로 33mm, 세로 10mm의 금속판에 수와 같은 락으로 싸여있다.

당의 은정속에 훌륭히 개건된 서산호텔

준공식 진행

【평양 10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장군 70톤을 앞두고 청춘거리 체육촌지구에 위치한 서산호텔이 개건되어 우리 체육인들과 인민들을 기쁘게 하고있다.

독특한 건축형식에 현대적인 설비들과 가구가 갖추어졌다는 서산호텔에는 수백개의 객실과 여러개의 크고작은 식당들, 물놀이장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 등이 훌륭히 꾸려져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지도와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훌륭히 개건된 서산호텔 준공식이 5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준공식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준공식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체육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금메달로 결사옹위하자!》,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의 결승선을 앞두고 청춘거리 체육촌지구에 위치한 서산호텔이 개건되어 우리 체육인들과 인민들을 기쁘게 하고있다.》 등의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준공식에는 로동당총리와 김영훈 체육상, 관계부서 일군들, 군인건설자들, 서산호텔 일군들과 종업원들, 체육인들이 참가하였다.

준공식은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로동당총리 겸 공사를 하였다.

언설자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장군 일흔셋을 우리 조국력사에 길이 새겨주시고 인민에게 영원히 남는 기념물로 남게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였다.

그는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 건축물인 서산호텔은 혁명정신의 전기간 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거룩한 명도의 자욱이 뜨겁게 आरो배겨져있는 우리 체육인들의 사랑과 모자라이며 나라의 믿음직한 대의봉사기지가되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가까운 앞날에 우리 나라를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울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제 102(2013)년 3월 청춘거리 체육촌을 모소 찾으신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빛내여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영광스러운 일일 이 가르쳐주시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거룩한 건설력량을 편성해주시고 40여차례 나신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지도와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훌륭히 개건된 서산호텔 준공식을 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 건축물인 서산호텔은 혁명정신의 전기간 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훌륭히 복구된 검덕공업연합기업소 증산천 미광침전지

준공식 진행

【단천 10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검덕공업연합기업소 증산천 미광침전지가 훌륭히 복구되어 준공하였다.

증산천 미광침전지 복구공사가 짧은 기간에 완공됨으로써 유색금속광물증산천의 통을 세차게 울리면서 이 지구의 환경보호사업을 더 잘해 나갈수 있게 되었다.

준공식이 5일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태동수 항정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단천지구공업총국 총국장 리한화, 관계부서 일군들과 해당 단위 건설자,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태동수책임비서가 준공사를 하였다.

언설자는 당장전 70톤을 승리의 대추처럼 맞이하고있는 뜻깊은 시기에 검덕공업연합기업소 증산천 미광침전지 복구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단천공업연합기업소와

사과제를 제기내에 결속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당의 위대한 구상을 받들고 단천지구를 글지의 대유색금속생산기지, 마그네사생산기지로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검덕공업연합기업소에서는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유색금속광물생산량을 높이는 한편 침전지관리운영을 짜고들어 증산천에 언제나 맑은 물이 흐르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언설자는 뜻깊은 10월을 맞으며 공사를 완공한 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증산천 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로 이룩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훌륭히 복구된 증산천 미광침전지를 돌아보았다.

서사시

당 기 여 , 어 머 니 품 이 여 ! - 위대한 어머니당의 탄생일에 참가 드린다 -

1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걸음마때는 아기와도 같이
70년전 10월의 그날
우리 당의 손길에 이끌려
첫걸음을 시작한
우리 조국 우리 인민

이 땅의
모든 승리와 영광
자랑과 긍지가 시작된
우리의 10월

가슴벅차구나
로동당의 그 세월속에
인민은 세기를 주름잡는 보폭을 내
걸고
조국은 강성국가의 눈부신 추수를
없었구나

그 어디를 바라보아도
그 어디에 귀를 기울여도
위대한 어머니당을 노래하는
이 땅
이 하늘

황홀하구나
대동강변에 거대한 돛배들 닻을 내
린듯
출처어 솟아난 새 거리
거창하구나
또 하나의 백두산악으로 그 용자 떨
치는

백두산영웅전날전소
이 땅 끝에서 끝까지
강성변영의 빛날 휘부리는 창조
의 기쁨비늘...

어찌 잠재할 수 있오라
가속속에 썩어
사정의 분수
일렁일 일렁이는
시의 물결

우리 당에 대한
한없는 고평양의 노래
이 마음을 불러
이 마음을 이끌어
내 삼가 싶노라

마치와 낮과 붓
인민의 운명을 역세계 겨안고
당기발 휘날리는
당중앙청사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르나니

아, 눈부시다
저기 저 광문
최후승리의 이정표가 세워지고
필승의 전력이 태어나는
조선혁명의 참모부

귀중하고 귀중하신분
우리 원수님 계시는 집무실
그이의 심원한 사색이 어린 창
문에
억만가닥 해살이 비껴흘러라

위대한 수령님들
한생의 승결과 안고 나뉘는
붉은 당의 위대한 기수
혁명에 심장을 내대시고
우리 당을 이끄시는분

그이 지금 저 당기와
얼마나 뜨거운 마음속대화들 나누
시랴
장장 70성상에 어린
수령님들의 한평생
그 하루하루를
다 안아보실 우리 원수님

그이 가슴속에 파도쳐오는
추억의 바다위에
빛날처오는 해방산의 불빛
70년전 10월의 그날
당창립대회보고문을 쓰시며
우리 수령님 지새우시던
그 창가의 불빛이여

한자 또 한자
글줄을 펴리시는
우리 수령님 마음속에
조용히 웃으며 다가서는
《E, C》의 못 잊을 동지들

연락도 없는 수수산 운동장에서
우리 당의 첫 《영명제》가
주제의 넋을 안고 태어나던
화전의 그 10월을 그려보시는가

한장 또 한장
번지는 잡피잡피에
이날을 위해
배두팡이에 열렬청춘들
아낌없이 목숨을 쏟은
피어린 혈전사가 비껴흘렀거니

드물줄 모르는 백두의 반석위에
역사의 뿌리를 내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심장에
순결한 피를기울이고
탄생의 순간을 맞는
주제의 우리 당!

해돋이의 불타는 노을속에
역사의 새 아침을 불러
새벽장문을 열어젖히시는
우리 수령님

-파란푸결과 준엄한 시련을 겪던
우리 조선의 혁명력사에
새 페이지를 기록할 시간이 다가오

교있소

아, 성스러운 아침
우리 당의 한생과 더불어
인류사에 가장 수난담던 인민이
역사의 주제
자주시대의 주인으로 태어난
운명의 10월 10일이여!

그날부터
인민의 모습을 빛나게 새겨안고
창공높이 나뉘는 붉은 당기
이 나라 인민의 운명을
기록에 소중히 감싸안았나니

역사의 그 10월
우리 수령님 당기에 실으신것은
인민민대 운명의 무게
조국만대 번영의 무게

긴긴 세월을 넘어 오를까지
인민의 생명 사회주의를 지켜
빨찌산행군을 멈춘적 없는 우리 당
당중앙은 언제나
가뭇쳐질한 수호전
관가리대결전의 최전방에 있었
거니

경모의 마음 금할수 없구나
당기에 그대를 바라보던
총검의 서리발 섬섬히 어린
오성산의 거대한 자태가 떠올라
그 필릭인애선
장군님의 아전차발뚝소리가 들
려와

우리 그 발뚝소리를 따르며
나뉘를 펴자 서사시여
그 자자자속에 정가로운 꽃송이
정히 놓아드리며

아, 못 잊을 그 이야기
백년다시 천년다시 듣고 새겨도
가슴뜨겁게 젖어드는 이야기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전해야 할 이
이야기

최전방의 마지막의 통급을
불이 인계 누비는 아전차
오성산 천협의 비랑길우에서
지쳐내리며 벗어났던
차바퀴자국 차바퀴자국

재어보라 근화 한자국
가슴에 적과 근화 한자국
그아래는 천길 낭떠러지
심장이 멎는듯
땅이 꺼지는듯

그 한치한치
혁명의 생사존망이 놓인
사선의 길을 헤치신
우리 장군님 심정의 메아리여

-선군의 이 길에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있다
실사 이 길에서 한몸을 바친다
해도
우리의 후대들이 기억할것이다

오, 선군의 길은
조국과 인민을 품안고
육탄이 되어 나아가신
우리 장군님의 인생길
우리 당이 헤쳐온 사생결단의 길

아슬아슬한 그 순간은
여기 멎어 흐르지 않는다
오성산의 그 꿰뚫음
우리는 오늘도 듣는다

이 나라 천만아들딸들이
다시는 땅국노가 되지 말라고
가장 맺었이 존엄함이 살라고
우리 장군님 이이거신 그 자자자속
이여

몰어보자
강도여 하늘이여 바다여
그 피어린 길 몇천몇만리더나
우리 장군님 한발한걸음으로
헤치신 눈비비람은 그 얼마였더나

불같은 피로 숨결로
당과 인민의 운명을 하나로 융합시
키며
인민의 가슴가슴에 새겨진
그 비장한 인생실적으로
선군의 당 로동당의 역사를
가장 빛나게 엮으신 장군님

그 길에서
아전복은 색이 다 바래졌어도
당기는
장군님의 불같은 한생으로
그 붉은 빛 더 짙어지고
더 새겨져 휘날렸거니

수수천천 인간의 운명사를 수록
해온
력사에 말하랴
너 이 땅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그 무엇을 알았더나

오,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에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역사의 주제로
활개치며 민족을 누리는 인민을 보
았는
우리 당의 주제사상 선군사상이
유일무이한 전리임을 알았다

우리의 입심전결

우리의 핵억제력이
침략과 전쟁을 이기는
정의와 평화의 힘임을 알았다

병도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은 조국은
수령이 위대하여
당도 위대하고 인민도 위대한
강국이라는것을
경중하였다 공인하였다

내 나는 모른다
이 세상에 당이 그 얼마나 많은지
인류발전의 한 시대와 함께
가치와 존재를 끝마친 당은 얼마
인지
역사의 동란속에 기발을 내리우고
소리없이 사라진 당은 또 얼마인지

내 오늘 당당히 말하노라
장장 70년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이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기며
희망의 등대로 빛나는 우리 당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이는
조선로동당의 백승의 기치
혁명의 영원한 사상정신적재부
우리 삶의 참된 교과서

그 광휘로운 빛돌
자연도 사되도 불들이며
자주시대의 도도한 흐름을 선도
하는
로속하고 세련된 조선로동당

수령님들의 빛나는 존함
수령님들의 높으신 권위로
누구도 따를수 없는 판복을 지닌 당
그 전도양양함에 세계가 우러러
보는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
무궁한 세기와 세기들이여
이제 너는 천년만년
로동당시대로 흐르고 빛나려니
영광넉친 우리의 세월
그 시원이 열린 날이여

아, 그날은
인민의 영원한
삶의 하늘이 열린 날
위대한 조선로동당이 창건된
10월 10일이여라

아, 그날은
인민의 영원한
삶의 하늘이 열린 날
위대한 조선로동당이 창건된
10월 10일이여라

귀중하구나 당기에
어머니의 승결
어머니의 심정의 박동이
울려오는지 같아
그 품에 내 얼굴 묻노라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다는 알수 없으리
당기에 조선로동당이여
그대를 어머니라 부르고
그대 품을 우리 집이라 노래하는
우리 인민의 인생철리를

안기여 한생
사랑과 정에 살고
안기여 천민이
한식술로 사는 품

비바람 눈비람 다 막아주는
다심하고 용성길고
세월이 가도 식을 줄 모르는
그 정 그 사랑은
생의 젓줄기

자식키우는 교생을 교생으로 여
기는
어머니가 없듯이
품안은 자식을
사랑에 웃고 정에 울며 사는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듯이

우리 수령님들에게는
천만의 아들딸들을 품에 안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하신것이
인생의 보람이고 행복이었거니

송배라도 절대의 인민승배
복무라도 절대의 인민복무
이는 우리 수령님들의
한생의 지론
인생의 본령

우리 수령님
그리고 눈물겹게 추억하신 인민
의 모습
저 멀리 로아명의 산전막로인
당기는
장군님의 불같은 한생으로
그 붉은 빛 더 짙어지고
더 새겨져 휘날렸거니

그들이 나라에
황금덩이를 바쳤던가
천만재부를 쌓아올렸던가
세기와 더불어 한평생을 회고하시
면서
인민에게 기울이신 자신의 정보다
당만을 믿고 따라온 인민의 진정을
수령님은 구절구절 담으셨나니

만일 그 정을
감물이나 시비물에 비길수 있다면
《형류》나 《유류》라는
이름을 붙이고싶고
그 정은 길이로써도 펴수 없고
무게로써도 가늠할수 없는
무한대한것이었다고...

우리의 입심전결

-인생의 진미는

인민의 사랑을 받고 정을 받는것
이다
인민에 대한 사랑에서
조국애도, 민족애도, 혁명애도 나
온다

이것이 이것이
우리 수령님
행복의 첩리
사랑의 첩리

우리 수령님의
그 고결한 이인위천의 뜻을
이 땅위에 꽃피우시는 길에
우리 장군님 간직하신
필생의 좌우명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그 글밭은
우리 장군님 당을 이끌어오신
장장 반세기
용용히 웃음진 친함없는
사랑의 샘줄기
우리 당에 무한한 활력을 준
영원한 심정의 불

그이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던 그 낮과 밤
해가 들고 별이 들었어라
인민위해 불타는 심장이 식으면
그 순간에 삶은 빛을 잃는다 하시던
그 절절한 음성

겨울줄 모르던
천중앙의 불빛은
천만자식들을 돌보는
어머니의 눈빛이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가슴속아름다운 예이려
열백발을 지새우고
천리길을 달려가
천리길을 달려가
무궁한 세기와 세기들이여
이제 너는 천년만년
로동당시대로 흐르고 빛나려니
영광넉친 우리의 세월
그 시원이 열린 날이여

아, 그날은
인민의 영원한
삶의 하늘이 열린 날
위대한 조선로동당이 창건된
10월 10일이여라

우리 나라의
첫 대형산소분리기를 만들어낸
라원의 로동계급을 축하해주시고
현지지도의 먼길을 떠나가셨던
장군님
어찌 알았으랴 다시 오실줄을
다시 오시여 하시던 간곡한 당부

-마음이 놓이지 않아 되돌아왔소
성분이요 경력이요 이것저것 재지
말고
일당도 시키고 표창도 크게 하여
야 하오
우리는 그들을 끝까지 메리고 가
겠소
이것이 바로 우리 당의 광풍정지요

아,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삶
천이더나 만이더나
이 믿음은 안고 사는것보다
세상이 더 고귀하고
더 값높고 아름다운 생이 어디 있
으랴

아,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삶
천이더나 만이더나
이 믿음은 안고 사는것보다
세상이 더 고귀하고
더 값높고 아름다운 생이 어디 있
으랴

달리는 못 불리
심장을 다해 부르고 부르는
어머니
조신로동당이여!

그 무엇으로 헤아릴수 없는
우리 당의
인격적 광풍정치의 그 품에서
하나의 심장으로 교동치는
우리 당대오는
천백배로 강해졌나니

10월이여
어머니당의 손길에 받들려
인민의 만복 피어내는 기쁨의 10월
이여
더더욱 못 잊어 그리운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그 이야기로
저 하늘 저 우주를 가득채우라

조선의 인공지구위성이 날아오
를 때
련하의 CNC가 출지어졌을 때
그앞에서 장군님 흘리신 눈물
그 쇠물같은 뜨거움을 다시 이야기
하라

고난의 행군의 나날
눈속에도 씨앗을 움켜우고
얼음우에도 꽃을 피우는 사랑으로
우리 장군님 마련하신
인민만복의 뿌리
강성국가의 주추
이복하신 그 업적 다 이야기하라

그 행군길의 모질고 엄혹하던
만단사연 못 잊으시여
후날 자신께서 회고록을 쓴다면
우리 당이 헤쳐온 온갖 시련을
그대로 다 쓰셨다 하시던
우리 장군님

가슴 사무치노라
하늘땅에 새겨야 할 그 한생에 받
들려
어머니의 모습으로 빛나는
로동당역사의 그 갈피갈피가
우리 당 총비서 김정일동지

가슴 사무치노라
하늘땅에 새겨야 할 그 한생에 받
들려
어머니의 모습으로 빛나는
로동당역사의 그 갈피갈피가
우리 당 총비서 김정일동지

수수천년 인류가 갈망하여온

그이의 눈물겨운 회고록이 아니었
던가

사상도 가장 위대하고
병도도 가장 탁월하고
용모도 가장 고결한
세계정치원로이신 장군님
그 업적 하늘에 닿은
자애로운 인민의 아버지

장군님 사랑의 천리만리
그 한자옥한자옥을 더해보시며
우리 원수님
삶의 선사처럼 새겨안으신
첩의 의지
인민을 위한 필사복무!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이 어린
내 나라를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일떠세울수만 있다면
한몸이 설사 한알의 모래알이
되어
후손들이 걸어갈 그 길우에
뿌리진다 하여도 더 바랄것이 없
습니다

아, 송고한 그 뜻안에
다짐하자 우리 다짐하자
인민복부의 한길에서
베를 깎자
화구를 막자

우리 수령님들 한평생
인민에게 주고싶었던 모든것
가까운 앞날에 다 이루어주려는
것이
우리 원수님의 결심이며 의지이
거니

그 의지에 받들려
마침없는 문명의 봉우리로 솟아오
르고
순도원기순원 아이들의 공진이 눈
부시어라
연봉호반엔 품속의 무이경이 흐
르고
장친발은 농장도시의 천지개혁을
노래불러라

사랑과 꿈이 아름다운
이 하늘아래서
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싶
이랴
우리 원수님
육이원과 애육원을 찾으셨던
그날의 눈물겨운 이야기

사망과 꿈이 아름다운
이 하늘아래서
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싶
이랴
우리 원수님
육이원과 애육원을 찾으셨던
그날의 눈물겨운 이야기

원수님 품에 먼저 안기려
얼마나 달려오는 아이들
갈수록 가뭇 면이기는 강풍
속되고 어지러운 온갖 잡다한것
들을

-넘어질라, 그러다 넘어질라
가슴을 조이시며
마음 먼저 앞서시며
두팔벌려 마중가시는
아, 우리 원수님

안겨서는 저저마다 보보해달라고
영두임을 벌리고 농글볼을 내대고
요구르름 손에 든 아이들
팔뻑을 짚아달라 조르고...

아이들속에 묻힌 우리 원수님
-그때그때
내 보보해주마
그때그때
내 팔뻑을 다 꽃아주마

팔팔대는 웃음소리 웃음소리
아이들은 꽃처럼 웃어도
어른들은 흐느끼며 울었다
하나 부리는 그 한마디는 같았다
아버지 아버지

그이의 크나큰 심장에서
팔없이 솟아오르는
천이아버지의
그 정 그 사랑

우리가 교생을 하며 혁명을 하는
것은
혁명을 위한것이라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지키는것이
사회주의수호전이라고 하시는
우리 원수님

아, 우리 원수님의 그 사랑이
천민의 가슴에 흘러흘러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떨어져 못살 혼연일체를 이루었
나니

이 혼연일체는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
우리 당의
무궁무진한 필승불패의 힘

깊고 뜨겁고
다심하고 아름다운
인민사랑의 노래로 가득찬
환희로운 10월
나는 우리 인민에게 웨치고싶
구나

마음껏 꿈을 꾸라
마음껏 소원하라

원수님의 품 우리 당의 품속에서
우리는 모든 꿈을 이루어
우리는 모든 소원 꽃피우려
우리는 모든 영광 맞이하리
수수천년 인류가 갈망하여온

인간사랑의 세상을 펼친 당의 품
10월의 하늘이 들리도록
인민은 목에여 부르고 부르나니
아, 당이여
어머니이시여

장장 70년
성스러운 역사를 안고 휘날리는
우리의 당기를 보라
백두산에서 물들여온 순수한 그 붉
은 빛
퇴색이 있는가
변색이 있는가

역풍이 몰아치고 탁류가 소용돌이
치도
백두산에서 정한 리정표를 향해
우리 원수님 휘날려가시는 당기발
에선
백색의 적기가 울린다
천지의 격랑이 일어번진다

황금해의 청춘어장을 찾으시여도
백리청춘파원을 걸으시여도
그이의 발밑에는
백두의 용암대지가 밟힌다

최고사령부 작전데일에 서시여도
백색의 총성이 울리고
정숙이 깃는 집무실에서
분류의 로작필멸에 심혈을 기울이
실 때에도
살애이는 백두밀림이 파도쳐오
나니

언제나
어디서나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마음의 기둥 신념의 메부로로
가슴속에 억척같이 세우신분

그새 원수님은 그러도 자주
백두산에 오르시었다
우리 당앞에 펼쳐 새 구상을 안으시
고도
혁명앞에 난국이 가로놓일 때에도
가슴속아름과 괴로움이 있을 때

하거니
서사시여, 우리도 함께
가자 백두산으로
오르자 백두산정에
원수님의 거룩한 자욱을 따라

눈보라 눈보라
싸이-싸이-
소리치는 폭설의 강풍
속되고 어지러운 온갖 잡다한것
들을
삼시에 말끔히 휩쓸어버리며
질주하는 서리발의 눈보라

하늘땅을 막 채우며
하늘땅을 뒤흔드는
그 눈보라를 상패히 호호하시며
치어-치어-
장실우에 깊숙이 적어가시는
우리 원수님의 발자국 발자국

그이는 백두산의 지동치는 눈보
라에
매혹되신분
매혹되어 사랑하시는분
감정도 정서도 통하여
때로는 다정히 미소를 지으시며
치어-치어-

삼천리에 줄기를 뻗친
우리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는 쉬이 열어주지 않는
신성한 문이 있나니

그 문앞에서 눈보라는 라헬을 모
른다
살이 젖기고 뼈를 에이는 시련앞
에서
갈개를 굽혀 무릎꿇는 비겁한 배신
자들
지조를 내던지고 인락을 찾는 추악
한 반절자를
가져없이 배어내치는 칼이 되는
백두산의 눈보라

그 진맛을 알고 사랑하며
혁명에 살고 애국에 사는
신념의 인간에선
따뜻한 봄비파로 안기는
백두산의 칼바람

그 따뜻함을 지닌 사람에게만
백두산은 문을 열어주나니
아, 그러면 펼쳐지는
백두산의 세계

이 세계에서는
인간이 황위에 살아 가장 아름다와
지고
백철불굴의 투지를 지녀 언제나 승
자로 산다
이 세계에서는
혁명가들의 이름할수 없는 희열이
넘치고
가장 고결한 인격과 존엄을 가
진다
가장 빛나는 영생의 삶을 누린다

백두산 오, 백두산아
오늘 누굴 모시었느냐
아름다운 말기 우뚝 솟은 장군봉에

백두산 오, 백두산아
오늘 누굴 모시었느냐
아름다운 말기 우뚝 솟은 장군봉에

백두산 오, 백두산아
오늘 누굴 모시었느냐
아름다운 말기 우뚝 솟은 장군봉에

백두산 오, 백두산아
오늘 누굴 모시었느냐
아름다운 말기 우뚝 솟은 장군봉에

백두산 오, 백두산아
오늘 누굴 모시었느냐
아름다운 말기 우뚝 솟은 장군봉에

백두산 오, 백두산아
오늘 누굴 모시었느냐
아름다운 말기 우뚝 솟은 장군봉에

백 의 선
거연히 서신 우리 원수님
조종의 산이 정기 모아 드리는
백두산의 주인!
우리 당의 맹솔자!

그이의 빛나는 안팎 통역에 비
끼자
불타는 노을이 하늘을 물들인다
순간
이글이글 타올라 거대한 불덩어리
불속 솟아 하늘로 오른다
태양, 태양이 백두산에 솟는다

-멋있소
정말 장관이요
질풍치는 눈보라속에서
호랑한 웃음소리 웃음소리

천지의 깊고깊은 호심에서
거센 용암이 솟아쳐올랐는가
정-적정
두려운 열음장 머지는 소리
천리만리로 울려가는
불우리소리 불우리소리

저 눈보라 저 칼바람을 휩쓸어온
김일성백색의 붉은 기록에서
우리의 10월은 태풍의 승결 모았
나니
당이여 그대의 넋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
백두의 눈보라는 원수님의 눈보라

하거니 어찌
그 본래 변함없이 있오라
그대의 붉은빛 변색이 있오라
그대 정한 리정표 혼들림 있오라

그 리정표는
바람파라 결친 돛 달고
한치도 가늠수 없는 초행길
오직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서산
끝까지 끝마로 가낼수 있는 길

혁사의 솟는길에 헤치며
세기를 이어 승승장구하는
이 세상에 단 하나
백두의 당이여
우리 원수님 이끄시는 당이여

혁명의 진두에 휘날리는
불멸의 태양이 그 빛발로
우리 당대오에 무궁한 활력을 부여
주시며
백두산대국의 대전성기를 열어가
시는
위대한 김정은동지!

영광이여라
백두의 혁명정풍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우리 당의 피폭기로 줄기차게 이어
지거니

척척 척
우리 당의 영원한 행군로
백두의 행군길우에 울리는
혁명의 계승자
청년전위들의 발걸음소리

아, 우리 당이 천만몸을 들어 키
워낸
미더운 청년대군
원수님 따라 하늘땅 끝까지
당의 무모이러면
산악도 떠올리고 바다도 메우며
질풍쳐나가는 발걸음소리

조선로동당의 품에 자라난
청년강국의 미더운 백두청춘들
백두산혁명강군의 근위병들
당을 따라 세기의 폭풍을 헤쳐온
불굴의 영웅인민

우리 당을 일련단신
억척불변의 신념으로 받드는것은
우리 인민의 영원한 생명선
우리 조선의 영원한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는
10월의 경승광장을 향해 달려왔
거니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려
인민은 열렬의 환호를 올린다

만세! 만세!
하늘땅을 진감하는 환호성은
사회주의만세의 환호성
로동당만세의 환호성
축로, 축로여
별을 뿌리라 꽃을 뿌리라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인민을 만드시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이 빛날치고
세상 끝까지 원수님만 따르고 따를
인민의 불같은 총성이 굽이치는
10월의 광장이여
일심단결의 대하여

마치와 낮과 붓이 불멸할
저 붉은 기록은
영원한 우리 삶의 품
영원한 인민의 하늘!

우리는, 백두의 태양이 빛나는
10월의 하늘이여
조선로동당의 붉은 당기여
누리를 덮으며 무궁토록 휘날
리라!

우리는, 백두의 태양이 빛나는
10월의 하늘이여
조선로동당의 붉은 당기여
누리를 덮으며 무궁토록 휘날
리라!

우리는, 백두의 태양이 빛나는
10월의 하늘이여
조선로동당의 붉은

